

뉴스 기사로 알아보는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의 교류 모습
중랑초 4학년 5반 이름 :

중랑구, 무안군과 우호 교류 협약 체결

[출처] 한겨레 서울엔 취재팀

2024.11.7.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6일 중랑구청에서 전라남도 무안군과 상생발전을 위한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랑구와 무안군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각 보유하고 있는 지역 자원을 공유하여 상호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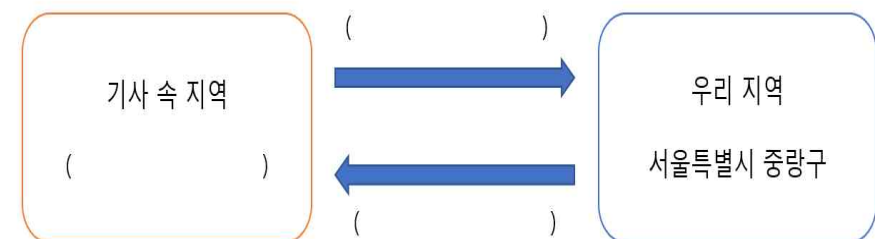
협약의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 교류 △지역 관광자원 연계 △우수 농·특산물 홍보 △민간 차원의 교류 확대 등이다.

특히, 중랑구의 망우역사문화공원과 무안군의 황토갯벌랜드 등을 비롯한 특색있는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등 민간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 농·특산물 홍보와 민간 차원의 교류 확대 등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무안군과의 교류를 통해 문화, 경제와 관광 등 여러 방면에서 상호 발전을 이루어낼 것이라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중랑구와 무안군이 함께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현재 불가리아 카잔루크시, 일본 메구로구, 중국 동성구 등 해외 3개 도시와 국내에서는 지난해 전남 고흥군에 이어 이번 무안군까지 국내 9개 도시와 교류 협약을 체결하며 활발한 국내외 교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② 이 기사에서 우리 지역(중랑구)과 다른 지역은 어떻게 교류하고 있나요?



뉴스 기사로 알아보는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의 교류 모습
중랑초 4학년 5반 이름 :

‘메가쇼 팔도밥상 FAIR’ 참가 서울약령시 우수 한방 상품 선보여

[출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2024.11.6.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 서울한방진흥센터가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열리는 ‘메가쇼 팔도밥상 FAIR’에 참가해 서울약령시의 우수 한방 상품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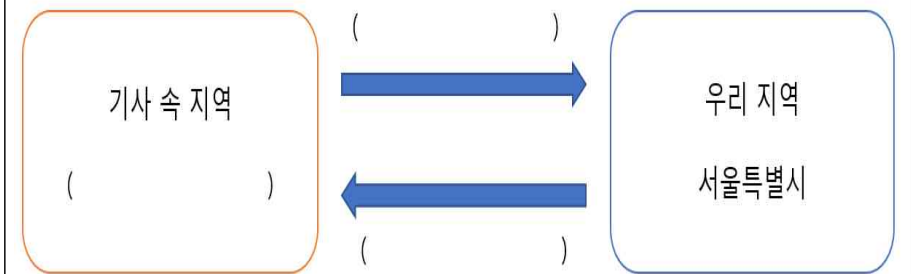
‘메가쇼 팔도밥상 FAIR’는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식품 박람회로, 전국의 다양한 지역 특산물과 고유 식품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소개하는 자리다.

행사 기간 동안 서울약령시의 다양한 한방상품을 시음 및 시식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해 방문객들이 한방의 효과와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서울한방진흥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방산업특구를 알리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서울한방진흥센터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서울약령시의 뛰어난 한방 상품을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동대문구 한방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약령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판로를 발굴하고, 한방산업의 가치를 널리 전파하겠다”고 밝혔다.

② 이 기사에서 우리 지역(서울시)와 다른 지역은 어떻게 교류하고 있나요?



뉴스 기사로 알아보는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의 교류 모습
중량초 4학년 5반 이름 :

서울 직거래장터 상설 운영...농가 매출 1년 새 47% 증가

[출처] 뉴스1 박우영 기자

2024.9.12.



서울시는 지역 상생을 위해 2009년부터 이어온 '직거래장터'를 올해부터 서울 전 지역에서 상설 운영한 결과 참여 농가 매출이 전년 대비 47%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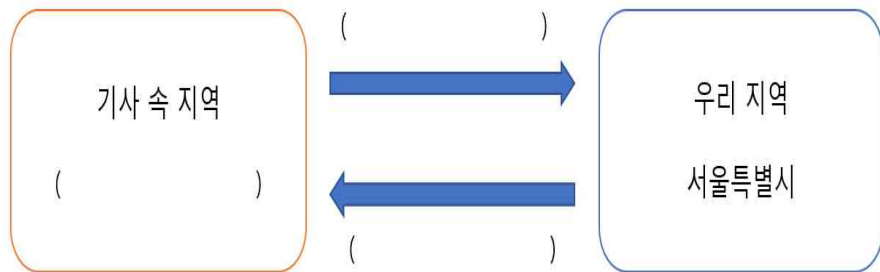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 주요행사와 연계해 상설 운영중인 '동행마켓',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확대 추진하는 '농부의시장', 리뉴얼을 마친 '서울동행상회' 등 행사로 올해 지역 농가 총 매출이 1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있다.

동행마켓은 지난해 170만 명이 방문한 '책읽는 서울광장', 200만 명이 찾은 '잠수교 뚜벅뚜벅축제' 등 시 대표 축제와 연계한 직거래장터다. 농가들이 직접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취지로 시행됐다.

농부의 시장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서울 주요 명소인 양천 파리문화공원, DMC, 독섬 한강공원에서 상설 운영하는 직거래장터다.

가을에는 전라남도 '직거래 장터 큰잔치', 구미 '로컬푸드 페스타', 안동 '지역장터', 경북 '사과축제' 등의 직거래 장터가 예정되어 있다. 이동을 서울시 행정국장은 "앞으로도 농촌 살리기에 앞장서서 도농상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과의 다양한 접점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② 이 기사에서 우리 지역(서울시)와 다른 지역은 어떻게 교류하고 있나요?



뉴스 기사로 알아보는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의 교류 모습
중량초 4학년 5반 이름 :

서울시, 개도국들에 서울 도시철도 기술 전수

[출처] 헤럴드경제

2024.10.28.



서울시는 몽골과 모로코,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4개국 주요 도시에서 도시철도 정책을 결정하는 관계자들을 초청해 서울의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기술을 전수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다음달 2일까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연수 프로그램은 2013년 처음 선보인 뒤 코로나19로 2020년 중단됐다 2023년 재개됐다. 지난 14번의 연수에 24개국 127명이 참여해 서울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 기술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몽골 울란바토르, 브라질 상파울루, 모로코 라바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철도 분야 정책을 수립하고 건설 및 운영하는 주요 기관들은 이번 연수를 통해 서울시와 교류를 강화하고 글로벌 교통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서울의 도시철도 계획, 건설, 운영관리 등 노하우를 해외 주요 도시에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들에게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② 이 기사에서 우리 지역(서울시)와 다른 지역은 어떻게 교류하고 있나요?

